



<예수빌리지 구역1>
 청소년 1과

제목	위대한 시작 1
배울 말씀	창세기 1:1-2:3
외울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창 1:1-2).
메인 아이디어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
포인트	하나님은 유일한 창조주이시다.

▶ 표지에서 클릭하면 애니메이션 효과가 나타납니다.



1925년 7월 21일, 미국 테네시주에서 ‘원숭이 재판(Monkey Trial)’이 열렸습니다. 원숭이를 고발하는 재판은 아니었지만, 사람들은 이 재판을 원숭이 재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재판은 공립 학교의 과학 교사 ‘스콧스’가 수업 시간에 ‘진화론’을 가르쳐 고발을 당하며 열리게 되었습니다. 재판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스콧스는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학교 수업에서 ‘진화론’을 가르칠 수 없었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창조론’을 가르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즘, 이 재판이 다시 열린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당연히 스콧스는 벌금형을 받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지금은 수업 시간에 ‘창조론’을 가르치면 고발당할 수 있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 진화론) 지금 우리는 학교에서 진화론을 기반으로 한 과학을 배우고 있습니다. (▶ 믿음)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진화론은 과학이란 영역의 한 가지 가설이자 주장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진화론을 우리 생각의 기준으로 삼거나 신앙과 믿음을 부정하는 무기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과학과 철학 등 여러 학문에서 세상의 시작에 대해 많은 연구를 했고 그 결과 무수한 이론과 가설이 세워졌지만, 결국 모두 같은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 결론은 바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성경은 명백하게 세상의 시작에 대해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을 펼쳐서 읽는 순간 우리는 그 ‘시작’에 대한 명확한 선언을 읽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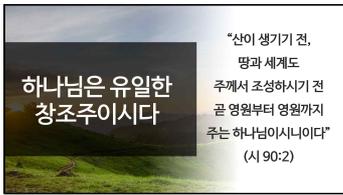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시작’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작’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시작이며, 온 세상의 시작입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5절과 2장 1-3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 1:1). 이 구절은 창세기의 첫 구절이며 성경 전체의 첫 구절입니다. 이 구절 자체가 오늘 설교의 제목인 ‘위대한 시작’입니다. ‘태초에’라는 말은 ‘처음에’ 혹은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시작이고, 시간의 시작이며, 역사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구절이 이어지며 모든 시작을 여신 분이 등장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1절을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은 유일한 창조주이시다’라는 선언입니다. 성경을 보면 세상이 시작될 때, 다른 그 어떤 존재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세상 이전에 존재하신 분임을 알게 합니다.



시편 90편 2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시 90:2).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시작이십니다. 그분의 ‘창조’로 온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 위대한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 **포인트**) ‘하

나님은 유일한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 곧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처음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혼돈하다’라는 말은 형태가 없다는 의미이고, ‘공허하다’라는 말은 내용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창세기 1절과 2절을 구분하여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1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심을 선언하고, 2절부터는 하나님이 행하신 창조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요약(선언)과 자세한 설명’으로 이루어진 구성을 창세기 안에서 자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즉흥적으로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 나라의 신화를 살펴보면 창조는 대부분 신의 장난이나 신들의 전쟁 가운데 발생한 우연한 일로 묘사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는 그와 같지 않습니다. (▶ **질서 있게 창조**) 하나님의 창조는 질서 정연하고 논리 정연합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철저히 계획되었고, 완벽하게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계를 보면서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질서 정연한지 살펴봅시다. (▶ **빛**) 첫째 날, ‘빛’을 만드셨습니다(3절). 이것은 해나 달이 내는 빛이 아니라 보다 근원적인 빛을 의미합니다. 이 빛은 어둠과 대비되는 것입니다. (▶ **해, 달, 별**) 이것과 대응되는 것이 넷째 날의 ‘광명체’입니다(14절). 해와 달과 별이 그것이죠. 해는 첫째 날의 ‘낮’을 주관하고, 달과 별은 ‘밤’을 주관합니다. (▶ **궁창**)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셨습니다(6절). 궁창은 하늘이고, 하늘 아래의 물은 바다입니다. 이것과 대응되는 것이 (▶ **새와 물고기**) 다섯째 날의 ‘새’와 ‘물고기’입니다(20-21절). 새는 둘째 날의 ‘하늘’에 있고, 물고기는 ‘바다’에 있습니다. (▶ **육지**) 셋째 날, 육지를 바다에서 드러나게 하셨습니다(9절). 그러면 이것과 대응되는 여섯째 날에는 무엇이 만들어졌을까요? (▶ **동물과 사람**) 육지에 사는 동물들과 사람을 창조



하셨습니다(24, 27절).

(▶ **틀**) 정리하면 하나님은 첫째 날부터 셋째 날에 혼돈한 세상, 곧 형태가 없는 세상에 질서인 ‘틀’을 만드셨습니다. (▶ **내용**)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에 ‘공허’한 세상, 곧 내용이 없는 세상에 내용을 채우셨습니다. 너무 완벽한 순서이고 구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이 ‘참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31절). 처음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창조의 절정은 ‘사람의 창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는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 곳을 만드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고, 사람이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완벽한가요? 질서 정연한가요? 아름답고 찬란하고 기이하며 놀라운가요? 하나님이 ‘참 좋다’라고 말할 만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흔적들은 발견할 수 있지만, 안개가 잔뜩 낀 것처럼 희미하고, 세상은 다시 혼돈과 공허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창조는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혼돈이 질서로 바뀌고, 공허가 충만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질서가 혼돈이 되고, 충만함이 공허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러하며, 우리 삶도 그러합니다. 이런 불행한 역사와 말씀으로 회복되는 이야기를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의 이야기는 성경 이야기 전체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온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셨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완벽함으로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의 말씀으로 질서 있게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맛볼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지만,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 그 놀라운 세상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첫 책, 창세기의 첫 장은 우리가 회복해야 할 나라, 장차 들어갈 나라의 모습을 선명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시작,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 진리를 꼭 붙들고, 여러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